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1월 2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총 무 과	담 당 자	• 총무팀장 한교동 ☎440-2501 • 담당자 박인준 ☎440-250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직자, 사랑의 연탄으로 쪽방촌 추위 녹인다

- 연탄 1만6,280장 기부...공무원 자원봉사자들 직접 배달에 나서기로 -
- 유정복 시장 시무식서 “인천의 미래 향해 힘차게 도약하자” 밝혀 -

인천시 공직자들이 모은 연탄 1만6천여장이 골목 곳곳 온정으로 전달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새해 첫 근무일인 1월 2일 시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연탄 1만 6,280장을 쪽방촌 등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사랑의 연탄기부운동을 통해 모은 1천384만원의 성금을 모아 연탄 1만 6,280장을 인천연탄은행에 기부했다. 나아가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배달 봉사를 약속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연탄은 쪽방촌 등 추위에 취약한 가정의 창고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3년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이날 시무식에서 유정복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의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사자성어처럼,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꿈들과, 크고 작은 정책들이 모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사랑스러운 인천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변화와 혁신의 디딤돌을 마련했고, 이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자”며 직원들과 함께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올해 시무식은 연탄 기부금 전달과 함께 신년 박 터트리기, 2022년 대외 수상성과 보고, 대통령 훈포장 전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검은 토끼의 해를 여는 힘찬 출발을 알리고,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시 뛰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